

## 누노세 신사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마쓰바라 6 개 신사 순례지의 하나. 스사노오노미코토, 야에코토시로누시노미코토, 다케미카즈치노미코토를 제신으로 모셨다. 신사의 전승에 따르면 북쪽 아마미 지역의 아마미 언덕에 있었던 것을 흰 천을 깔고 이곳으로 옮겼다고 해서 신사명을 누노세로 하고 마을 이름을 무카이무라로 지었다고 전해진다(현 기타신마치).

본전은 모모야마 양식을 계승한 에도시대 초기의 잇켄샤나가레 양식. 편백나무껍질을 이어 만든 지붕을 엮었으며, 박공에는 스사노오노미코토를 뜻하는 범자를 새겨넣어 신도와 불교가 혼합된 형태를 띤 진귀한 양식으로 귀중하다. 또한 본전 정면에 ‘布忍窟’ 이라 쓰여진 편액이 걸려 있는데, 이는 우지(교토부)의 황벽종 본산 만푸쿠지 절의 5 대 주지 고센쇼톤이 쓴 글이다. 본전 감실의 양측면에 그려져 있는 당사자(唐獅子)는 가노 단유가 그렸다고 전해진다. 본전은 1663 년 5 월 9 일, 시미즈무라(현 미나미신마치)의 신도 기노시타 씨가 무운장구와 무병장수 등을 기원하여 봉납한 목패와 함께 오사카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2005년 본전에 사용된 목재를 연륜연대 측정으로 조사한 결과, 남북조시대의 1372 년+ $\alpha$  (50~100 년)에 산야에서 벌채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배당에는 1705 년 11 월 13 일에 봉납된 ‘누노세 팔경’ 편액이 걸려 있다. 누노세 신사 주변의 경치를 그린 것으로, 신사 뒤의 흰 벚꽃, 고손마을의 저녁노을, 노토의 봄날, 헤이덴의 가을달, 난잔산의 잔설, 서해의 만망, 죽림의 방울새, 로치의 흰갈매기 등 팔경을 느티나무판 1 면에 두 경치씩 그려 총 4 면을 봉납하였다. 2 세트가 제작되어 현존하는 6 면이 마쓰바라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